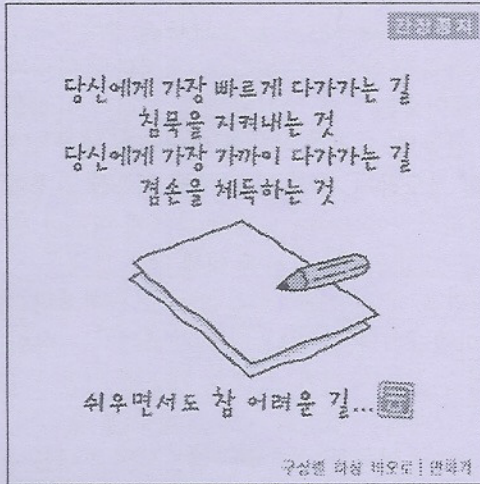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 2주일
제29권 2호(나해) 2008.12.7

[묵상]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너희를 가없이 여기시려고 일어서신다.
주님은 공정의 하느님이다.
행복하여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곤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너희 눈이 너희의 주님을 뵈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들으리라.
“이것이 바른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그러면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의 우상들과
금을 입힌 너희의 주물들을 더럽게 여겨
그것을 오물처럼 내던지며 말하리라.
“나에게서 모두 사라져 버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낫게 해 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
이레 동안의 빛을 한데 모은 듯하리라.
(이사야 30,18-26 참조)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엄은섭 도로테오
특전미사	(생)문영일 안토니오, 신혜숙 올리아, 박동수 베드로, 한석규와 회경 안젤라 가정, 조지 가보라, 한연만 뿌로파시오와 켈마 가정, 이지미 마리아, 김형순 다니엘과 벨라멧다 가정, 강호우 안토니오, 서현수 올리아, 이상용 엘리야, 김재우 베드로, 이성연 크리스티나, 우경석 요한, 이민현 베네딕도, 우현정 안젤라, 강호광 스테파노, 최인용 안드레아, 김풍길 바오로와 제희 모니카 가정
주 일	(연)최복덕 마리아,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한병열 토마스, 이상현 베드로, 김순성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황만근 베드로, 송중복, 양옥분 켈마, 허동수 루스
낮 미사	(생)김수환 추기경, 박재훈 제임스,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유우학레 안나, 홍주희 안나, 오세원 아타나시오와 혜숙 루시아 가정, 임춘희 켈마, 현석주 아오스딩과 영화 베로니카 가정, 김남호 올리오, 최운정 레지나, 김지원 임마쿨라따, 박주현 마리아, 박동수 베드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40,1-5,9-11

- 화답송**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전례성가 60, 대림 제2주 나해>
- 주 하느님 말씀을 내 듣고 싶사오니,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 자비와 충성이 마주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움터나오면,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면, 구원은 그 길음을 따라가리라.㉣

제 2독서 베드로 2서(2 peter) 3,8-14

- 복음** ㉠알렐루야.
- 환호성**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마르코(Mark) 1,1-8
-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23	124
봉헌	378	248,261
성체	356	303,295
파견	125	123

21.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삶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찾아와서 물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지 꽤 알겠군. 그분 어떤 분인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고, 어떤 말씀을 들려 주셨는가? 나에게 그 가르침을 한 번 들려주게!” “글쎄 잘 모르겠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다니?” “자네 말이 맞네. 난 사실 아는 게 너무 적어 부끄럽네. 하지만 3년 전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을 지고 있었지.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났었고,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시했네. 그러나 이제는 술도 끊었고, 빚도 다 갚았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귀가하기를 기뻐하며 반길 정도라네. 우리 집은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었네. 이게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결례. 이만큼은 나도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 알고 있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1-13)

▶ 변화 - 회개의 삶

세례성사로 성령을 모시고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은 세례와 함께 시작된 회개의 삶을 평생토록 계속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회개 하여라!”(마태 4,17) 하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히 ‘회개의 삶’이라고 한다. 회개라는 말은 ‘길을 바꾸다’, ‘돌아오다’는 뜻이다. 곧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며, 하느님께 귀의하여 생활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은 이 세상의 헛된 이상들을 찾으면서 그 우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락을 추구하던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이제는 하느님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며 오직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회개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세례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 은총에는 하느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열망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세 가지 덕행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덕, 망덕, 애덕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삶, 끊임없이 당신을 향한 신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열이신 성령을 통하여 은총과 힘을 거저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신망애 삼덕의 삶에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도 꼭 필요하다. (◆CBCK 제공 - 계속)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런데 마무리의 계절 12월에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12월에 세속의 마지막 달력 한 장과 교회의 새로운 달력 한 장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세속과 교회가 만나고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終則有始 중즉유시).

그전에 존재했던 자신이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탄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死生之說 사생지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 교회가 새롭게 전례력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 마무리의 계절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은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르코는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이 짧은 말로 구약과 신약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를 강조하는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하느님 은총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사가 요한은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모세에게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요한 1, 16-17).

복음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의 서두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분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면 복음은 이미 그 출발점에서부터 성경의 끝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침표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 22,20).

이렇게 복음의 시작은 성경의 끝과 연결되고, 12월 마무리의 계절은 대림의 시작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주님의 오심’입니다. 아니, 시작과 끝을 넘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오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례 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깨어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대림절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박성철 미카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박소영 수산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김금자 데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숙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서용숙 에스텔	권술길 체첼리아
제물봉헌자			도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LA 대교구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주일(7일)은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매달 첫주일에 봉헌하는 자선헌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마련된 봉헌봉투를 이용해주시시오.

+ 대림 시기 +

두번째 대림초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례주년이 시작된 대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기는 또한 회개의 시기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 없이는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주님께로 향하여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 시기의 영성입니다.

- ◆ 병자 영성체 : 12월11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7일(수)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
 - * 주일학교 학생들의 판공성사도 일정이 같습니다.

- ◆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납가주 한인성당 대림판공 시작으로 본당의 12월10일(수), 11일(목), 17일(수), 18일(목)의 저녁 미사가 아침미사(8시30분)로 변경됩니다.

~ 성탄 · 송년 미사 안내 ~

- ◆ 성탄전야미사 & 목요교리반 세례식 : 24일(수) 오후 9시
- ◆ 성탄 대축일 : 25일(목) 학생미사 오전9시30분
대축일 미사 오전 11시
- ◆ 2007 송년미사 : 12월31일(수) 오후 9시

◆ 목요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 오늘 주일(7일) : 낮 미사 중
- 대부모님들께서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한국학교 기금마련 장신구 판매

- 일시 : 오늘 주일(7일) 학생미사/낮미사 후 천교장

◆ 백삼위 본당 성탄축하 잔치 소공동체 구역대항 장기자랑

- 일시 : 12월28일(주일) 낮미사 후 오후 1시부터
- 경연종목 : 지정곡(전례성가 142,144,146 중 택일), 자유곡, 성탄절꾸미기
- 성탄절 꾸미기 (Express Expression) 6개구역별 주제
- *토동 : 천사가 목동들에게 주님탄생을 알림 *토서 : 동방박사의 경배 *토남 : 성모님 잉태하심을 알림 *토북 : 성모님 엘리사벳을 방문하심 *PV : 성모님 예수님을 낳으심
- *하버/카슨 : 이집트 피신
- 상금 : 1등 \$500, 2등 \$300, 3등 \$200, 참가상 \$100
- 찬조출연 : 주일학교, 배론청년회, 원서회

- 품목 : 귀걸이, 목걸이 등 예쁜 액세서리와 묵주
- 경제적인 크리스마스 선물용입니다. 많이들 사주세요.

◆ 유아세례식

- 일시 : 12월27일(토) 오후 6시, 대부모님 필히 참석
- 세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주시시오.

◆ 레지오 마리에 낮반 프레시디움 시작

- 본당 레지오가 재창단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프레시디움이 셋(바다의 별, 순교자의 모후, 자비의 모후)으로 단원이 늘어나 12월부터 낮반이 새로 조직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회 : 12월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신청 : 오혜숙 루시아 ☎(310)490-3358

◆ 불우이웃 돕기 캔푸드(Can Food) 수집

-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모으는 캔푸드(통조림)를 12월 한달 동안 계속 수집합니다.
- * 수집장소 : 성당입구 수거함

◆ 상본 전화(콜링)카드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7일(주일) : 요셉회에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전신자들에게 건강식 해물짜장밥을 대접합니다.
- 12월14일(주일) : 토런스 동 2반 (우거지 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광자	김병태	김성일	김양금	김원모
	김주량	김태호	김택수	남명자	민상기	박광자
미사헌금 : \$2,908	박정희	박종열	배기엽	서성용	서홍삼	신대철
	안민수	엄정자	엄지선	오세원	오일순	이석호
	이영숙	익 명	임한나	장영우	장정진	조영희
	최기남	최석원	최진수	최희태	한금순	현석주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5,465		

성전헌금	강태홍	김광자	김병태	김성일	김양금	김원모
	김주량	김택수	남명자	민상기	박광자	박정희
합계 : \$3,955	박종열	배기엽	서성용	서홍삼	신대철	엄정자
	오세원	이석호	이영숙	이일길	익 명	임한나
	장영우	장정진	조영희	최기남	최진수	최희태
	한금순	현석주	영희가보라			
	합사헌금 : 엄혜은	한창주	한경숙			

◆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두달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연극과 노래, Body Worship 등 성탄 축하 발표회를 마련했습니다. 리허설과 본행사에 자녀들을 꼭 참석시켜주시고, 학부모님들은 물론 전신자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성탄 예술제

- 리허설 : 12월13일(토) 오후 2시~4시
- 예술제 : 12월20일(토) 오후 2시~3시30분 연습
오후 3시30분~5시 본행사

◆ 주일학교 고등부 바이블 스타디(성경공부)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층 유아실
- 대상 : 9학년~12학년
- 지도교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현켈리 베로니카
- 문의 : 한기찬 알렉스 ☎(310)625-6492

◆ 겨울방학(주일학교/한국학교)

12월28일(주일), 1월4일(주일)은 겨울방학으로 수업이 없습니다.

◆ St. Margaret Mary School 신입생 모집

백삼위 성당이 속한 성 마가렛 매리 본당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스쿨에서 2009 학년도 신입생(K-8)을모집합니다.

- 학부모 초청 오픈하우스 : 2009년 1월25일(주일) 오전 8시~오후 1시. * 킨더가르텐(K) 어린이는 2009년 12월 1일로 만 5세가 되어야 합니다. ☎(310)326-9494

남가주 소식

◆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봉헌/강신식

- 일시 : 12월8일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성당
- 주례 : 김재섭 요한마리아 비안네 신부
- 주최 : 파티마 세계사도직(푸른군대)서부평의회
☎(323)818-1285

◆ 제 26주년 기념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20일(토) 오후 6시
- 장소 : 놀웁 매리엇 호텔(13111 Sycamore Dr.
Norwalk, CA 90650)
- 연락처 : 각본당 ME 대표부부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변혜경 율리아 920-5153 12/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12/27(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3	한길선레 스펠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42 12/19(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데레사 618-8499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가디나 황제식당 719-8989 12/5(금) 오후 7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박명순 안나 750-0540 12/11(목)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3	강은진 켄마 214-2290	남구역 1,2,3반 합동 반모임 12/11(목) 오후 7시,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12/12(금) 오후 7시, 성당 강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6(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12/5(금) 오후 3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의혜 세실리아 541-0700 12/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찬 세바스찬 748-8436 12/12(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2/12(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제1회 생명(生命) 수호 주일

서울대교구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경중하고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 주일을 ‘생명 수호 주일’로 정하고, 이날 교구의 모든 미사를 생명 수호를 위해 기도하는 ‘생명미사’로 봉헌하기로 하였다.

▶ **고귀한 생명가치** : 하느님은 생명이시며, 당신의 중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현세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 하느님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으며, 인간생명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함과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생명에 대한 위협** : 하지만 오늘날 인간 생명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약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생명의 복음](1995)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자유에 대한 왜곡된 사고로 말미암아 배아, 태아, 장애인, 노인과 같이 더 큰 사랑과 보살핌이 요구되는 생명을 쓸모없는 생명, 또는 짐으로 여기며 거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음을 고발하셨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자살, 낙태, 저출산 등은 우리의 극심한 생명경시 풍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존귀한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하느님을 공격하는 것”([생명의 복음] 9항)이다.

▶ **생명의 문화건설을 위하여** : 이제 생명의 문화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우선 인간 생명은 조작, 훼손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도구화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性)과 사랑, 생명에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 나서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이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위한 기도와 함께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묵상하며 이기심이나 소유욕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를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인간 생명에 대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야 하겠다.

‘생명(生命)’ 과 ‘인권(人權)’

서울대교구는 오늘 12월 첫 주일을 생명수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서울대교구의 모든 본당이 ‘생명미사’를 함께 봉헌함으로써 생명수호에 대한 교회의 강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행위 중 특히 자살은 인간이 택하는 최후·최악의 행동이다. 당사자의 모든 것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긴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의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3,407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우리 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를 남의 일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또 유명인사 특히 연예인이 사망한 뒤 한 달 평균 140명 정도가 더 자살한다. 이는 ‘베르테르 효과’ 때문인데, 요즘은 마스크를 통해 베르테르 효과가 확대되는 한심한 추세다. 어쨌든 자살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중, 자살 예방용 긴급전화의 설치, 무엇보다도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오늘은 인권의 날이다. 모 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에티오피아 출신 여교수는 한국에 처음 와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가 ‘흑인이야? 흑인은 안 돼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된 그녀는 현재 모 대학의 강의를 맡고 있는데 ‘흑인인데 어떻게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는 말도 자주 듣는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참 아팠다. 우리도 못 먹고 못 살던 무렵, 외국에 일하러 나가 차별의 서러움을 삼켰던 시절이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달러에도 못 미쳤고, 54년에도 콩고·가봉·가나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뒤졌음을 기억하자. 그랬던 우리가 이제 사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 우리와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생일에 맞춰 지은 손자의 세례명 ‘가롤로 르왕가’를 두고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 우간다 성인이나?” 하는 주위 반응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필자의 민망한 기억이 떠오른다.

‘생명수호의 날’을 맞아 종교인의 비율이 높은 이 땅에서 자살자 격감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겠다. 또한 ‘인권의 날’을 계기로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세계를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포용이야말로 글로벌시대의 코드가 아닌가?

◆김현 요셉 | 방송인·여행 연출가